

# 아동개별서비스 평가서(2020년)

결	담당자	시설장
재		

아 동 명	학년/성별
영역	총 평
보호	<p>아동은 올해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u>코로나19 휴원 기간에도 긴급 돌봄지원을 받아 집중적인 보호서비스를 받았다.</u> 감염예방을 위하여 상시 '<u>위생건강</u>'에 힘썼고, '<u>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u>'에서 '<u>위생</u>' 및 '<u>식중독예방교육</u>'도 받았다. 또한, 아동 안전을 위해서 '<u>재난대비안전교육</u>'을 받아 지진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사용될 수 있는 <u>심폐소생술 실습</u>도 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u>감염병 예방교육</u>도 받았다. 실제 모형을 통한 교육에 강한 흥미와 참여도를 보여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위험할 때 구해드릴 수 있겠다는 말을 해 칭찬을 받고 했다. 코로나 휴원 기간 동안 식사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시락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긴급 돌봄 시 우선 이용하게 해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결식예방, 구호물품 배분 및 위생관리 등에 효과와 연고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p>
교육	<p>'<u>아동권리교육</u>'을 통하여 아동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게 되었고,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기적성 수업으로 '<u>생활과학교실</u>'에 참여하여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u>미술활동</u>'에 참여하여 피크닉 그네와 강아지 집을 미니어처로 직접 만들어 보았다. <u>형을 따라서 'Magic if! 오페라 여행'</u>에도 5회 참여하여 오페라 소품도 만들어 보고, 악기도 연주해 봄으로써 오페라에 대한 지식향상 및 음악성 발달, 음악을 통한 정서발달의 기회도 가졌다. <u>기초학습</u>에서 아동은 상반기에 주의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속적인 관리로 하반기부터는 학습시간에 집중하며 스스로 문제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 <u>학습능력과 태도가 향상되었다</u>고 보여 진다. 다만 하기를 싫어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아직도 가끔씩 발생하기에 주어진 시간내에 자신의 할 일을 완수하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p> <p>먼저 학습이 끝난 날은 어린 동생들 수학을 지도해주기도 하고 채점을 도와 주기도 하면서 자신의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많이 개선된 생활태도 등이 종사 뿐만 아니라 외부 선생님들을 웃게 하기도 하였다.</p>
문화	<p>'<u>이 월드 체험</u>'을 통하여 다양한 놀이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u>땅땅랜드 체험</u>'을 통하여 치킨과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 보는 '<u>요리체험</u>'의 기회도 가졌다.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감염예방관리에 주의하며 진행되었다. 1월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u>국립칠곡숲체험원 체험</u>'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러 곳에 놀러가는 문화체험행사 때문에 센터 공부하는 게 싫지만 꼭 참고 공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놀러가는 게 불가능했던 올해가 너무 싫다고 하면서 속상해하기도 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멀리 체험활동가고 싶다면서 의견수렴함에 희망사항을 많이 넣어둘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행사 참여하며 만족도가 높다.</p>
정서지원	<p>'<u>가정생활지원서비스</u>'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에 어려움이 생긴 아동들의 가정에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지원받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 지원으</p>



	<p>로 감염예방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MOM(맘)편한 꿈다락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과 함께 ‘카레라이스(요리체험)’도 만들어 먹었고, 가족별 ‘이 월드 체험’ 기회도 가졌다. 10월에는 풀 케어 발달지원서비스를 통하여 학습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였고, 바트리움과 연계하여 신체(자세교정)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11~12월에는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참여하여 자아 존중감 향상 및 또래관계증진의 기회를 가졌고, 연말에는 ‘송년회와 우쿨렐레 발표회’를 통하여 아동들이 직접 선택한 간식을 먹으며 즐겁게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말 행사에서 아동은 사회를 보면서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동 및 연고자 상담’을 9건 실시하여 센터 등원 시간 지키기와 화가 나는 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가 나는 감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고 온라인 개학 E-학습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에 의뢰하여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도 진행하여 정서 및 가족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동반자 상담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경호가 상담선생님과 계속 만나서 상담받길 원하고 상담담당자님도 내년에 한 번 더 서비스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내년 상담 진행해 보기로 계획하였다.</p>
지역사회연계	<p>‘환경교육’을 통하여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봄으로써 유해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고, 아빠미소멘토단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너의 꿈을 말해줘’에 참여하여 자신의 꿈을 과자로 표현해보고 꿈 편지도 직접 작성해 보았다. 또한, 강북유소년스포츠센터와 함께하는 바른 자세 통합 운동서비스에도 참여하였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참을 줄 아는 방법, 화를 잘 내는 방법 등을 센터내에서는 계속 지도해 나쁜 말이나 행동을 줄여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센터밖에서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또래 친구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잘하다가도 한번씩 행동으로 나타나다보니 여러 방면의 전문적인 도움서비스도 찾아볼 계획이다.</p>
비고(특이사항)	<p>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휴교하면서 센터의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은 아동 중 하나였다. 그중에서도 원격수업 시 도저히 가정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 늘 아침부터 저녁식사해결위해 저녁시간까지 센터에 머물면서 집중적인 관리를 받으며 지내왔다. 특히나 원격수업자체가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학교/반도 있는데 경호네 담임선생님이 다소 어려운 과제들을 많이 요구하시고 원격 수업하는 사진까지 제출하길 원하셔서 휴교기간 내내 힘들어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늦잠자고 하다 보니 원격수업자체가 아침 일찍 출석체크를 해야 시작됨으로 늘 발열관리나 수업참여 확인이 어려워 센터에 일찍 와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 긴급 돌봄기간 동안 더욱 더 센터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더욱 드러나는 해이기도 했다.</p>